

태어나서 세 돌까지
행복한 마누이
독후 활동



학습목표 언어, 학습 능력 발달

작가 오펀 던 글, 샬리 앤 램버트 그림

출판사 천개의바람

이 상황별 말놀이를 배우 보세요.

책의 내용을 활용하는 법을 함께 정리해 보아요.

- 상황에 맞는 말놀이 그림 조각을 붙여 보세요.

<p>걸기를 즐기는 아이에게 좋은 말놀이</p>	<p>예쁜 말을 가르칠 때 좋은 말놀이</p>
<p>옷을 입힐 때 좋은 말놀이</p>	<p>안전 교육에 활용하면 좋은 말놀이</p>
<p>음식을 먹일 때 좋은 말놀이</p>	<p>수를 가르칠 때 좋은 말놀이</p>

※ 그림 조각은 맨 뒷장에 있습니다.

- 말놀이는 어떤 점이 좋을까요? 책에서 본 것이나, 생각을 써 보세요.



- 말놀이를 하면 어떤 기분이 드나요?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을 그려 보세요.



02 아이들에게

나만의 말놀이를 만들어 보아요.

- 아래의 말놀이에 다른 단어를 넣어 보세요.



- 아래의 그림에 맞는 말놀이를 직접 만들어 보세요.



03 부모님께

아이와 있을 때는 수다쟁이가 되세요.

1. 말놀이 육아의 필요성

태어난 순간부터 아기는 말을 배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기에게 누군가 말을 걸어 주거나, 대화의 상대가 되어야만 비로소 말을 배우는 것이 가능합니다. 바로 여러분이 아기가 언어를 이해하고 사용하는 데 첫 단추를 끼워 주는 셈입니다. 더 많이 말 해 줄수록, 아기가 말을 배울 기회도 늘어납니다. 아기가 언어능력이 잘 발달하면 세상을 더욱 잘 이해하게 되고, 그러면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언어능력이 떨어지면 학습에도 어려움을 겪게 마련입니다. (본문 3p '이 책을 함께 보는 분들께' 中)

2. 생후 2개월부터 6개월까지의 특징

(책에 더 자세히 수록되어 있습니다.)

갓난아기도 엄마, 아빠의 목소리를 알아차립니다. 어르고 달래는 말놀이, 몸놀이가 더해진 말놀이는 신생아 때부터 가능합니다. 2개월쯤 되면 아기는 웃기 시작하고, 3개월에는 웅얼이도 제법 늘어납니다. 잠들어 있는 시간이 많지만, 목욕을 하고 기저귀를 갈고 젖이나 분유를 먹는 일상의 활동들은 말놀이하기에 좋은 기회입니다.





3. 생후 6개월부터 12개월까지의 특징

앞을 수 있게 된 아기는 이전과 다른 각도로 세상을 봅니다. 눈으로 어른들의 움직임을 좇고, 가족의 이름도 알게 되지요. 입술로 여러 가지 소리 내는 법을 알게 되고, 이런 ‘소리 실험’을 즐깁니다. 어떤 소리는 ‘엄마’ 나 ‘아빠’ 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4. 생후 12개월부터 24개월까지의 특징

12개월에서 18개월 사이의 아기는 한 단어나 두세 단어를 말할 수 있고, 그러면서 본격적인 대화가 가능해집니다. ‘컵’ 같은 단어 하나로 “나 목말라요. 마실 것 좀 주세요.” 라는 뜻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18개월쯤 되면 아기는 아빠가 의자에 앉기를 바랄 때 “아빠, 의자.” 처럼 두 단어를 이어 의미를 전달합니다. 어휘는 하루가 다르게 급속도로 늘어납니다.



5. 생후 24개월부터 36개월까지의 특징

만 두 돌이 지나면 이제 더 이상 아기가 아니라 작은 어린이지요. 아이는 말하기를 좋아하며, 자기가 뭘 하는지 쉬지 않고 조잘 맵니다.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드러내고, “싫어!”를 입버릇처럼 달고 다닙니다. 세 돌쯤 되면 다른 이와 어울려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데, 수수께끼나 동작을 지시하는 말놀이는 이런 활동에 도움이 됩니다.





● 첫 번째 활동에 사용하세요.

